

신미경 Meekyoung Shin



조각가 신미경은 런던과 서울을 오가며 영국박물관 등 유럽 유수의 미술관에서 전시하며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5년 가까운 오랜 시간 동안 조각의 재료가 아닌 '비누'라는 매체의 가변적인 물성과 풍화되는 유물의 형태를 대응시키면서 시간성을 가시화하여 시공간적 문화, 재료 간의 '번역'에서 오는 간극, 차이를 고집어낸다. 작가는 1998년부터 특정 문화를 대표하는 비너스를 비롯한 서양 고전 조각상, 불상, 도자기 등을 비누로 그야말로 정교하게 빚어내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작업은 흐르는 시간에 따라 마모되고 소멸될 위험에 있는 역사적 유물 및 예술품과 연결하여, 주위 환경에 따라 가변적인 '비누'라는 매체를 선택함으로써 그 질료적 특성이 강조되었다. 조각에 따르는 재현과 원본성의 문제는 물론이고, 일상 소모품인 비누의 물성은 견고한 권위의 조각적 형상과 충돌하면서 유물이 지닌 상징적 가치나 절대 가치, 문명에 의문을 제기한다. 응축된 시간을 중심으로 작업은 수많은 질문과 동시에 '조각'이란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비누 작업에는 정교하게 재현된 '번역' 시리즈인 중국 도자기를 비롯하여 달항아리, 얇고 투명한 '고스트' 시리즈, 그리고 금박과 은박을 정성껏 올리거나 브론즈 유물처럼 동박을 입혀 재현된 도자기 '화석화된 시간' 시리즈가 있다. 또한 관객으로 하여금 한동안 사용하게 하거나(화장실 프로젝트) 외부의 기후 조건에서 풍화시킨 고전 조각상들과 불상(풍화 프로젝트), 비누 평면조각인 드로잉 '비누에 새기다' 시리즈와 '페인팅' 시리즈가 있으며 폐허를 연상하게 하는 거대한 설치 작업 '폐허풍경'이 있다.

2017년부터 세라믹과 유리 분야도 석사학위를 받고 동반해오면서 네덜란드 프린세스호프국립도자박물관에서의 '거석 시리즈'의 전시로 이어졌다. 2021년 발표한 제스모나이트(동시대 새로운 조각 재료)를 매체로 하는 작업 역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제스모나이트로 만든 '앱스트랙트 매터'시리즈는 '회화의 형태를 띤 납작한 조각'으로, 과거로부터 오랜 세월 축적된 흔적과 풍화자국에 주목, 고대 벽화나 오래된 건축물의 일부 혹은 추상 회화를 떠올리게 하는 비정형의 추상적 평면 조각들이다. 이들은 형태의 근원으로 회귀하여 재료 자체의 추상적 물성으로 나타난 새로운 조각적 형태이다. -Gallery JJ-

b.1967

- 2017 영국 왕립예술학교 세라믹&유리 석사 졸업
- 1998 런던 슬레이드스쿨 조소과 석사 졸업
- 199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석사 졸업
- 1990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학사 졸업

Selected Solo Exhibition (2019-)

- 2023 시간/물질: 생동하는 뮤지엄, 스페이스씨, 코리아나미술관, 서울
- 2021 거석 *Megalith* 프린세스호프국립도자박물관, 레이우아르던, 네덜란드
Abstract Matters, CR Collective, 서울
- 2020 *In the Shadow of Time, Art' Loft*, Leebauwens Gallery, 브뤼셀
- 2019 날씨, Barakat, London

Selected Group Exhibition (2021-)

- 2023 *The Shape of Time: Korean Art after 1989*, 필라델피아미술관, 미국
- 2022 흔적: 김현식, 신미경, 갤러리JJ, 서울
- 2021 *5518. 8880*, CU Coventry, 영국
감각정원: 밤이 내리면, 빛이 오르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대한민국
잃어버린 시간의 연대기, 서울대학교박물관, 서울



신미경, Petrified Time series 004, 2021, Soap, Gild with White gold and 24k gold, Varnish, 21 x 9 x 9cm

상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 대전시립미술관, 대한민국
Emotional Materials, Art' Loft, Leebauwens Gallery, 브뤼셀

AWARDS: 제2회 서울예술상(2024), 제2회 하인두예술상(2023), 서울문화재단기금_서울(2016, 2021), Prudential Award, 한국문화 예술위원회_서울(2012, 2017, 2019), Prudential Eye Awards, Best Emerging Artist Using Sculpture_싱가포르(2015), Research&Development Fund, Art Council England(2015), 올해의 작가_국립현대미술관(2013), GFA_Art Council England(2012)

PUBLIC COLLECTION: 국립현대미술관(서울), 서울시립미술관, 삼성미술관리움, 코리아나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미술은행, 서울 대학교박물관, 서울용산구청, 몽인아트센터(서울), 매일유업(서울), British Art Council, 브리스톨미술관(영국), 휴스턴미술관(미국), 프린세스호프국립도자박물관(네덜란드), Painting Studio(도쿄) 외 다수

Meekyoung Shin

Working and living between London and Seoul, Shin has exhibited in Europe's leading art museums, including the British Museum, and for about 25 years, has been visualizing temporality through the changing materiality of soap and weathering form of relics to uncover the gaps and differences caused by the translation between cultures and materials from various times and spaces. Her recent work involving jesmonite as a sculpture material has shown a remarkable result once again. Since 2017, she has expanded her practice into ceramics and glass, and the *Megalith Series* currently exhibited at the Princessehof National Museum of Ceramics is also ceramic work.

Since 1998, she has been drawing attention as a 'soap artist' by using soap meticulously (yet incompletely) to create Buddha statues, Western classical sculptures, ceramics, and things that are representative of certain cultures. In addition to the problems of presentation and authenticity from a replica or original copy, the physicality of soap, a daily consumable used as a substituting material for sculpture, conflicts with the authority of sculptural form and questions the iconic or absolute value of relics, and civilization. –Gallery JJ-

b. 1967

2017 MA, Ceramic & Glass Royal College of Art, London
1998 MFA, Sculpture, Slade School of Fine Art in University College London, London
1993 MA, Sculp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990 BA, Sculp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AWARDS: 2nd Seoul Arts Awards(2024), 2nd HainDoo Arts Awards(2023), Cultural Foundation Fund(2016, 2021), Prudential Award, Korean Art Council Fund(2012, 2017, 2019), Prudential Eye Awards, Best Emerging Artist Using Sculpture, Singapore(2015), Research&Development Fund, Art Council England, London(2015), Korean Artist Priz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2013), GFA, Art Council England, London(2012)

PUBLIC COLLECTIO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Seoul), Seoul Museum of Art, LEEUM Museum of Art, Coreana Museum of Art(Seoul), MMCA Art Bank,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Arts, Yongsan Council(Seoul), Mongin Art Centre(Seoul), Maeil Dairies(Seoul), British Art Council(London), Bristol Museum & Art Gallery(England), The Museum of Fine Arts, Houston(United States), Princessehof Museum(Netherlands), Painting Studio(Tokyo), etc